



# 메가 공무원 이유진 교수 2024 국가직 9급 국어 해설

現) 메가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서경대학교 공공인책자원학부 교수

박문각 공무원 국어 대표 교수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영술,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웅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출강

기타)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짜짜

법틀꺼널 PSAT 언어논리 칼럼 연재

KBS한국어능력시험 유형서 짜짜



이유진 우월한 국어



우월한 국어 이유진 카페

문 1. (가) ~ (라)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가) 더구나 약물은 내성이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

(나)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로서 오용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일, 남용은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다)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설명서를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라)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① (나) - (다) - (라) - (가)
- ② (나) - (라) - (가) - (다)
- ③ (라) - (가) - (나) - (다)
- ④ (라) - (다) - (나) - (가)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배열

고정부에서는 약물의 개념을 설명한 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정부 뒤에는 '약물의 오남용'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약물은 내성이 있어 오남용에 대한 피해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더구나'는 이미 있는 사실에 새로운 것을 더하여 언급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이므로 (가) 앞에는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이라며 오남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약물의 오남용'이라는 화제가 제시된 고정부 바로 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 선지 ③, ④ 탈락

(다) 약물을 사용할 때는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는 인과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

이므로, (다)의 앞에 약물을 적정량 이상 사용하여 문제가 된 상황, 즉 남용을 오남용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가)에서 언급한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관련이 있으므로 (가) 앞에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라)와 (가)는 (다)에 제시된 결론의 이유이므로 (다) 바로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 선지 ①, ③, ④ 탈락

따라서 ②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문 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서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을: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족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금수저', '흙수저'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병: 현대 사회가 빈부 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계급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 체계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특정한 계급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갑: 현대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결국 경제 활동이고,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 ①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
- ②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 ③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지만 을의 주장과는 대립한다.

☆ 정답: ② - 독해(화법) - 말하기 내용

을은 '귀족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 사회가 계급사회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계급사회라고 보는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① 갑과 을은 모두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이다'는 명제에 동의한다. 갑은 '현대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라며 을의 주장을 수용하고,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라며 병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을 반박한 적은 없다.

③ 갑은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이다'는 주장을, 병은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다'는 주장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둘이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갑과 을은 공통적으로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두 주장 모두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다'라는 병의 주장과 대립된다.

문 3.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로 쓰인 것은?

- ① 그 친구는 허구헌 날 놀러만 다닌다.
- ② 닭을 통째로 구우니까 더 먹음직스럽다.
- ③ 발을 잘못 디더서 하마트면 넘어질 뻔했다.
- ④ 언니가 허리가 잘룩하게 들어간 코트를 입었다.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접사 '-째'는 '그대로', 또는 '전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헷갈리는 형태로 의존 명사 '채'가 있으나 이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통째로'가 바른 표기이다.

통째: (흔히 '통째로' 꼴로 쓰여)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전부.

**☆ 오답 해설:**

① 허구헌(×) → 허구한(○)  
허구하다: ('허구한' 꼴로 쓰여)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

③ 하마트면(×) → 하마터면(○)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붙임 3에 따라 소리대로 적는 부사이다. '조금만 잘못하였다더라면'이라는 뜻이며, 위험을 겨우 벗어났을 때 쓰는 말이다.

|  |
|--|
|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3  |
|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br>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

④ 잘룩하게(×) → 잘룩하게(○)  
'기다란 물건의 한 군데가 꽤어 들어가 오목하다'라는 뜻으로, '잘룩하게'가 바른 표기이다.

문 4. 다음은 다의어 '알다'의 뜻풀이 중 일부이다. ㉠ ~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 ㉡ 다른 사람과 사귀어 있거나 인연이 있다.
  - ㉢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 ㉣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 ① ㉠: 그 외교관은 무려 7개 국어를 할 줄 알다.
  - ② ㉡: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이다.
  - ③ ㉢: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 ④ ㉣: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다.

**☆ 정답: ④ - 어휘 -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

㉠ 예시의 '알다'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믿거나 생각하다'를 의미한다. ㉣의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를 의미하는 '알다'의 예시로는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등이 있다.

**☆ 오답 해설:**

모두 적절한 예시이다.

- ① ㉠ 알다: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 ② ㉡ 알다: 다른 사람과 사귀어 있거나 인연이 있다.
- ③ ㉢ 알다: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문 5.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우리 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 도심부에서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 교수: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바뀌는 제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강 교수: 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기존의 70 km/h에서 60 km/h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진행자: 시의회에서 이 정책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셨나요?

강 교수: 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작년에 7개 구간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 적용해 보니, 차가 막히는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상 이상의 인명 사고는 26.2% 감소했습니다. 또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각각 28%, 21%가량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행자: 아, 그러니까 속도를 10km/h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 사고의 예방과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강 교수: 네, 맞습니다.

진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제한 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강 교수: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①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한다.
- ②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 ③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 ④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한다.

**☆ 정답: ④ - 독해(화법) - 말하기 방식**

상대방(강 교수)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진행자)의 경험을 예시로 든 적은 없다.

**☆ 오답 해설:**

① 강 교수는 '○○시가 작년에 7개 구간을 대상으로 ~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통계 수치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그러니까 속도를 10km/h 낮출 때 ~ 시간이라는 말씀이군요.'라고 하며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하였다.

② 진행자는 '~라는 점에서 이번의 제한 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까?'라며 강 교수의 견해를 요약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하였다.

③ 진행자는 '그런데 일각에서는 ~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며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강 교수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문 6.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은?

어떤 구성을 두 요소로만 쪼개었을 때, 그 두 요소를 직접구성요소라 한다. 직접구성요소가 어근과 어근인 단어는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라 한다.

- ① 지우개 - 새파랗다      ② 조각배 - 드높이다
- ③ 짓밟다 - 저녁노을      ④ 풋사과 - 돌아가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형태 - 단어의 형성

‘지우개’의 직접구성요소는 어근 ‘지우-’와 접미사 ‘-개’이므로 파생어이다.

· -개: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새파랗다’의 직접구성요소는 접두사 ‘새-’와 어근 ‘파랗다’이므로 파생어이다.

· 새-: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오답 해설

② ‘조각배’는 어근 ‘조각’과 어근 ‘배’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조각배: 작은 배.

‘드높이다’는 어근 ‘높-’에 접두사 ‘드-’와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③ ‘짓밟다’는 접두사 ‘짓-’과 어근 ‘밟다’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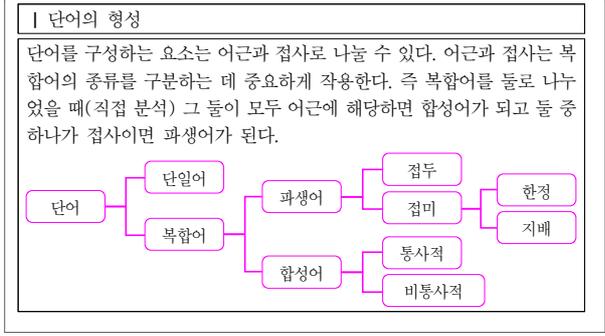
· 짓-: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구’, ‘함부로’,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저녁노을’은 어근 ‘저녁’과 어근 ‘노을’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④ ‘풋사과’는 접두사 ‘풋-’과 어근 ‘사과’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풋-: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돌아가다’는 ‘돌다’의 어근 ‘돌-’과 ‘가다’의 어근 ‘가-’가 연결어미 ‘-아-’로 이어진 합성어이다.



문 7.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에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 ①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문문의 형식 이해

이 시의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적이 없다. 이 시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느껴질 뿐, 화자가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출한 적은 없다.

☆ 오답 해설:

① ‘향토적 소재’란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소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들길’, ‘제비’, ‘울타리’, ‘화초’ 등 같은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여 ‘고향’을 묘사하고 있다

② 1연(~고향의 소녀와 / ~고향의 소년과), 2연(~듯), 4연(~마을이 있다)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3연에서 ‘천연히’라는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 담긴 1~2연과 자연의 조화가 담긴 4연을 연결한 부분으로, 시의 시상을 집약해서 주제를 함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작품 해설: 박용래, <울타리 밖>

- 해제: 이 작품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라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의 모습이 소녀와 소년의 순수함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연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자연 그대로의 성격을 보이며, 이후 묘사되는 마을의 공동체적 모습이 전혀 인위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주제: 자연을 닮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순수성과 본래성
- 구성
  - 1연: 소녀와 소년의 순수함을 담은 들길
  - 2연: 들길에서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섭리
  - 3연: 강조되는 대상의 특성
  - 4연: 자연스러운 섭리를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진화 이론이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둘째,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 체계는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최적의 적응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구석기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이 지니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원시시대에 사용하던 인지적 전략 등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원시시대의 적응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①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 마음은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된다.
- ②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 ③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④ 조상의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이 살았던 과거 환경이 인간의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첫째 문단에서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같은 조상을 두어 유전적인 적응 성향이 동일하더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다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인간의 행동은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행동과 마음이 각각 환경과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되는지는 알 수 없다.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구석기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이 지니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상황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첫째 문단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 성향과 환경으로부터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둘 중 유전적 성향보다 환경이 인간의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문 9. (가) ~ (다)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실을 **(가)** 한 그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그는 **(나)** 이 잦아 친구들 사이에서 신의를 잃었다.  
 ○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 **(다)** 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度外視 | 食言  | 矛盾  |
| ② | 度外視 | 添言  | 腹案  |
| ③ | 白眼視 | 食言  | 矛盾  |
| ④ | 白眼視 | 添言  | 腹案  |

**☆ 정답: ① - 어휘 - 한자**  
 (가) 도외시(度外視):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度 법도 도, 外 바깥 외, 視 볼 시  
 (나) 식언(食言):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食 밥 식, 言 말씀 언  
 (다) 모순(矛盾):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矛 창 모, 盾 방패 순  
**☆ 오답 해설:**  
 (가) 백안시(白眼視):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려봄.  
 白 흰 백, 眼 눈 안, 視 볼 시  
 (나) 첨언(添言): 덧붙여 말함.  
 添 더할 첨, 言 말씀 언  
 (다) 복안(腹案):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々 속배포, 의안  
 腹 배 복, 案 책상 안

문 1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 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오프라인’이나 ‘대면’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실체감이 있는 아날로그적 접촉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용어로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들도 많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아날로그 상호작용 수단과 디지털 상호작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은 비대면 혹은 대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같은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분법적인 범주는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 ①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②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에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③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도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둘째 문단에 따르면,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둘째 문단에 따르면,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분법적인 범주는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는 상호작용하는 양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③ 첫째 문단에 따르면,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용어로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들도 많다.'라고 하였다. 또한 둘째 문단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은 ~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첫째 문단에 따르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대면 상호작용,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은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관계에 해당한다.

문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사는 장화와 홍련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원통한 사정에 대해 고한 말을 듣고 배 좌수를 관아로 불러들였다. 부사가 물었다.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소?" 배 좌수는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후처가 엮고 있다가 남편이 사실을 누설할까 싶어 곧장 들어와 답했다. "제 친정은 이곳의 양반 가문입니다. 장녀 장화는 음행을 저질러 낙태한 뒤 부끄러움을 못 이기고 밤을 틈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차녀 홍련은 언니의 일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낙태한 증거물을 바치니 부디 살피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는 그것을 보고 미심쩍어 하며 모두 물러가게 했다.

이날 밤 운무가 뜰에 가득한데 장화와 홍련이 다시 나타났다. "계모가 바친 것은 실제로 제가 낙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모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 제 이불 안에 몰래 넣어 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다 배를 갈라 보시면 분명 허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에 부사가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쥐가 분명했다.

- 「장화홍련전」에서 -

- ① 부사는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 ② 배 좌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부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 ③ 장화는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부사에게 알려 주었다.
- ④ 배 좌수는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둘째 문단에서 장화와 홍련은 계모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으로, 부사에게 '그것을 가져다 배를 갈라 보'라고 하였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 부사는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미심쩍어하며 모두를 물러가게 했다. 이로 보았을 때,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부사가 장화의 홍련이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첫째 문단에서 배 좌수의 후처는 '장녀 장화는 음행을 저질러 낙태한 뒤 부끄러움을 못 이기고 밤을 틈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차녀 홍련은 언니의 일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배 좌수의 후처는 홍련이 아니라 장화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첫째 문단에서 부사는 배 좌수를 관아로 불러들여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소?'라고 물었다. 이는 장화와 홍련이 죽은 원인을 물어본 것이지,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본 것이 아니다.

☆ 작품 해설: 작자 미상, <장화홍련전>

- 해제: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 한 가정이 파멸되는 비극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계모와 전처 지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전처의 자식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에서 벗어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효종 대 전동홀(全東屹)이 평안도 철산 부사로 재직할 당시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콩쥐팍쥐전」과 함께 대표적인 계모형(繼母型) 소설로 손꼽힌다.
- 주제: 가족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勸善懲惡)
- 줄거리: 철산 땅에 사는 좌수 배우룡은 후사가 없어 걱정하던 차에 부인 장 씨가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꿈을 꾸고 큰딸 장화를 얻고, 이태 뒤 작은딸 홍련까지 얻게 된다. 그러나 홍련이 5세 때 부인 장 씨가 세상을 떠나자 후처로 허 씨를 맞이들인다. 허 씨는 용모도 흉악하지만 마음씨가 더 잔악하여 두 딸을 학대하였다. 이러한 계모의 구박과 모해로 인해 큰딸 장화가 연못에 빠져 죽게 되고, 홍련 역시 죽은 언니를 그리다 못해 같은 연못에 빠져 죽는다. 원혼이 된 장화와 홍련은 고을 부사를 찾아가나 부임하는 부사마다 겁에 질려 죽고 만다. 그러던 중 정동우라는 사람이 부사로 부임하여, 장화와 홍련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계모를 처형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연못에서 두 자매의 시신을 건져 내어 무덤을 만들어 주고, 배 좌수는 다시 장가들어 두 딸의 현신인 쌍둥이를 낳는다. 이들은 자라서 평양의 거부 이연호의 쌍둥이 윤필,윤석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

문 12.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가) ~ (라)에서 고르면?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 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으며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난중일기』의 진면목은 7년 동안 전란을 치렀던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가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는 데 있다. (가) 왜군이 라는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임금과 조정의 끊임없는 경계와 의심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우며, 영웅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느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나) 전란 중 겪은 원군과의 갈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보통의 인간이었음을 보여 준다. (다)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 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라) 『난중일기』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배치

제시된 문장은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한 이름 없는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 뚜렷하게 기록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된 것이다'라는 표지를 통해 제시된 문장이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앞에는 '이름 없는 이들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라) 앞에는 이순신이 자신의 일기에서 가족, 장수, 병졸, 하인에 대해 백성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라)이다.

문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 속에 어떠한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것인고. 불안과, 초조와, 기대와…… 그 조그만 종이 위의, 그 짧은 문면(文面)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또 확실하게,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람은 제게 온 전보를 받아 들 때 그 손이 가만히 떨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구보는 갑자기 자기에게 온 한 장의 전보를 그 봉함(封緘)을 떼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감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전보가 못 되면, 보통우편물이라도 좋았다. 이제 한 장의 엽서에라도, 구보는 거의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게다.

흥, 하고 구보는 코웃음쳐 보았다. 그 사상은 역시 성욕의, 어느 형태로서의, 한 발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물론 결코 부자연하지 않은 생리적 현상을 무턱대고 업신여길 의사는 구보에게 없었다.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구보는 잊은 지 오래였고 또 그 벗들도 이미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을꼬. 한 해에 단 한 번 연장을 보내 줄 따름의 벗에까지, 문득 구보는 그리움을 가지려 한다. 이제 수천 배의 엽서를 사서, 그 다방 구석진 탁자 위에서…… 어느 틈엔가 구보는 가장 열정을 가져, 벗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다. 한 장, 또 한 장, 구보는 제발이 위에 생담배가 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온갖 벗의 이름과 또 주소를 엽서 위에 흘려 썼다…… 구보는 거의 만족한 웃음조차 입가에 띠며, 이것은 한 개 단편소설의 결말로는 결코 비속하지 않다, 생각하였다. 어떠한 단편소설의-물론, 구보는, 아직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

- ①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회상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인 서술자가 주변 거리를 재현하고 있다.
- ③ 연상 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 ④ 전보가 이동된 경로를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형식 이해

주인공 '구보'가 문득 발견한 '전보 배달 자전거'로부터 시작된 구보의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구보는 사람들이 전보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인지 상상하며 자신도 전보를 받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이로부터 '벗들'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고 엽서를 쓰게 된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은 연상 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상 작용: 하나의 관념이 그것과 연관된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심리적 작용.

☆ 오답 해설:

- ① 둘째 문단의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구보는 잊은 지 오

래였고 또 그 벗들도 이미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을꼬.'에서 구보는 벗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을 뿐,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회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 소설은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구보의 이야기를 구보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는 주인공인 구보가 아니다.

④ 이 소설은 전보가 이동된 경로를 따라 사건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구보의 내면 의식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제시된 부분에서 전보가 이동된 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

☆ 작품 해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해제: 작가는 이 작품에서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고 외출에서 귀가까지 서술자의 관찰과 심리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인물의 내면 의식이 단편적 사실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사건이나 행위, 갈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작품에 사용된 의식의 흐름이나 몽타주 기법 등의 모더니즘 소설 기법들은 연관성 없는 내면 의식을 보여 주기 위한 효과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이 작품은 눈앞에 벌어진 장면을 노트에 적고 그것을 그대로 소설화하는 작가 특유의 창작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이를 '고현학(考現學)'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통해 소설을 쓰는 과정 자체를 소설의 주요 내용으로 삼게 된다.
- 작품의 주인공인 소설가 구보의 행동이나 의식의 흐름에는 목적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들어 있지 않은데, 이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식인 소설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 주제: 1930년대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사
- 줄거리: 구보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집을 나와 동대문행 전차를 탄다. 거기에서 섰던 여자를 보지만 모른 척하고 곧 후회한다. 다방으로 자리를 옮긴 구보는 차를 마시며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후 구보는 경성역에서 여자를 동행한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 다방에서 시인이자 기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다방을 나온 구보는 동경에서의 옛사랑을 추억하고 오랜 벗에게서 편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구보는 중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이제는 생활도 갖고 창작도 하리라고 다짐하며 오전 2시의 중로 네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문 14.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徘徊)하였다. → 돌아다녔다
- ② 이 산의 광물 자원은 무진장(無盡藏)하다. → 여러 가지가 있다
- ③ 그분의 주장은 경청(傾聽)할 가치가 있다. → 귀를 기울여 들을
- ④ 공지문에서는 회의의 사유를 명기(明記)하지 않았다. → 밝혀 적지

☆ 정답: ② - 어휘 한자 - 한자어

'무진장(無盡藏)'은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을 의미하므로, '여러 가지가 있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진장하다(無盡藏하다):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다.

無 없을 무, 盡 다할 진, 藏 감출 장

☆ 오답 해설:

- ① '배회하다(徘徊하다)'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를 의미하므로, '돌아다니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 배회하다(徘徊하다):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 방양하다, 지회하다
- 徘徊 어정거릴 배, 徊 머뭇거릴 회

③ '경청(傾聽)'은 '귀를 기울여 들음'을 의미하므로, '귀를 기울여 듣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경청하다(傾聽하다): 귀를 기울여 듣다.  
 傾 기울 경, 聽 들을 청

④ '명기(明記)'는 '분명히 밝히어 적음'을 의미하므로, '밝혀 적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명기하다(明記하다): 분명히 밝히어 적다.  
 明 밝을 명, 記 기록할 기

문 15.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루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흐디 녀저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파(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들히 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자의 결백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큰 숫자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과도 허물도 천만 업소이다(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에서 화자는 큰 숫자(천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을 향한 그리움은 시의 전체적인 정조이나, 이 부분을 통해 강조된 감정이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 산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내 임을 그리워하며 울며 지내다니 /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에서 자연물(산 접동새)를 통해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아니시며 거즈르신 들 아으 / 잔월효성이 아루시리이다(아니시며 거짓인 줄 아! / 천지신명이 아실 것입니다)'에서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자의 결백함을 나타내고 있다.  
 ③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임이 자신을 잊었을까 걱정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설의: 대답이 필요 없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

☆ **작품 해설: 정서, <정과정>**  
 •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의종 때의 문인 정서가 지은 향가계 고려 가요이다. 역모에 가담했다는 참소 때문에 동래로 귀양을 가게 된 정서는 자신을 곧 다시 부르겠다는 임금(의종)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이에 정서는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예전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정서의 호가 과정(瓜亭)이 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노래의 제목을 '정과정'이라 했다. 유배 문

학의 효시로 꼽히며, 국문으로 전하는 고려 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작가가 밝혀진 작품이기도 하다.

- 주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과 자신의 결백 주장
- 구성
- 기(1~4행): 자신의 고독한 처지와 결백함
- 서(5~10행):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해명
- 결(11행): 임에 대한 애원

[현대어 풀이]  
 내 임을 그리워하며 울며 지내다니 /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짓인 줄 아! / 천지신명이 아실 것입니다.  
 녀이라도 임을 한데 모시고 싶어라. / 우기시던 이 누구입니까?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 뭇사람들의 참언(모함)입니다.  
 슬프구나, 아! / 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아), 임이시여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하소서.

문 1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구애 행위나 짝짓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데,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변화 양상은 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른 수컷과 싸워야 한다. 이 시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컷은 곧바로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수치는 떨어진다.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나게 되면 수컷은 더 이상 영역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식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좀 더 떨어지고, 번식기가 끝나면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수컷은 자신의 둥지를 지키면서 암컷과 새끼를 돌보는 대신 다른 암컷과의 짝짓기를 위해 자신의 둥지를 떠나 버린다.

- ① 노래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 ② 번식기 동안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루어진 후에 낮게 나타난다.
- ③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암컷이 수정한 이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 ④ 노래참새 수컷과 검정깃찌르레기 수컷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둘째 문단에 따르면, 노래참새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수정이 끝난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여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나면 더 떨어진다. 즉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새끼를 양육할 때가 양육이 끝난 후보다 높다.

☆ **오답 해설:**

- ㉠ 둘째 문단에 따르면, 노래참새의 테스트스테론 수치는 번식기부터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떨어지기 시작한다. 즉 번식기 동안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트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 이전보다 수정 이후에 낮게 나타난다.
- ㉡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의 테스트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 둘째 문단에 따르면,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트스테론 수치는 번식기에 암컷의 마음을 얻기 위해 높아졌다가 번식기가 끝나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의 테스트스테론 수치는 번식기에 높아졌다가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번식기가 끝나면 수치가 떨어진다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새 모두 번식기의 테스트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아닌 시기의 수치보다 높다.

문 17.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주장한 다중지능이론은 기존 지능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기존 지능이론이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을 창안해 냈다. 다중지능이론은 뇌과학 연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좌뇌는 분석적, 논리적 능력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조적, 감성적 능력을 담당한다.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 검사에 대해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한다.

그런데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한다. 우선, 다중지능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지능이라는 말이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을 전제하는 것인데, 다중지능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다.

- ㉠ 논리수학지능은 다중지능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대인 관계의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 ㉢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
- ㉣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다중'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정답: ㉡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첫째 문단에 따르면, 다중지능이론은 기존의 인지 능력과 더불어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의 개념을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다중지능이론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대인 관계 능력을 비롯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이 기존에 주목받던

지능들과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며 그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중지능이론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대인 관계의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 오답 해설:

- ㉠ 첫째 문단에 따르면, 다중지능이론은 기존 지능이론이 다루던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개념을 창안했다. 따라서 논리수학지능이 다중지능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 첫째 문단에 따르면, 다중지능이론은 기존의 지능 검사에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하였다. 하지만 이는 좌뇌 능력과 우뇌 능력 모두에 주목하려는 시도이므로, 다중지능이론이 우뇌 능력보다 좌뇌 능력에 더 주목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둘째 문단에 따르면,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중지능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이 기존의 지능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므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 18. 다음 글을 읽고 할 때, ㉠~㉣ 중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치하듯이 ㉠기후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유럽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기상 재해 앞에서 기후학자로서 자괴감이 든다. 무엇이 문제인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구의 위기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크게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작게는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일 수는 있겠으나, ㉣지구가 파괴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정답: ㉢ - 독해(작문) - 고쳐쓰기

접속 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접속 조사 '과'의 앞뒤의 문법적 단위는 같아야 한다. 그런데 ㉢에는 구(국가 정책 수립)와 절(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이 '과'라는 접속 조사 앞뒤에 놓여 있으므로, 문법적 단위가 통일되도록 수정해야 한다.

\* 수정 예시

- 1. 문법적 단위를 절로 통일한 경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 2. 문법적 단위를 구로 통일한 경우: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 체결을 위해

문 1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주시 하는데, 이때 특정 단어에 눈동자를 멈추는 '고정'이 나타나며, 고정과 고정 사이에는 '이동', 단어를 건너뛸 때는 '도약'이 나타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동이나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K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능력 하위 집단(A)과 읽기 능력 평균 집단(B)의 읽기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서 횟수는 1회로 제한하되 독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에서 A 집단은 B 집단에 비해 약 2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은 B집단이 A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읽기 후 독해 검사에서 B 집단은 A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독서 과정에서 눈동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으로 건너뛰는 현상은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 는 결론을 내렸다.

- ① 더 많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적다
- ② 더 많고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도 더 많다
- ③ 더 적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많다
- ④ 더 적고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도 더 적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빈칸'은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가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지문을 요약하면, 읽기 능력 하위 집단(A)은 읽기 능력 평균 집단(B)에 비해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가 많다. 이는 상대적으로 A집단이 더 많은 단어에 고정한다는 뜻으로, 고정이 관찰될 때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A집단이 B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집단은 B집단에 비해 눈동자의 평균 고정 시간은 낮다. 그런데 평균 고정 시간은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값이므로, 이는 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집단은 B집단에 비해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A)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B)에 비해 (1)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 이 더 많지만, (2)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적다.

문 20.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섭취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완전 채식주의자는 이들 모두를 섭취하지 않으며, 페스코 채식주의자는 고기는 섭취하지 않지만 생선은 먹으며, 유제품과 달걀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섭취한다. 남은 세 가지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되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이들의 명칭은 라틴어의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lacto)'와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ovo)'를 사용해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으나 유제품과 달걀은 먹는다. 락토 채식주의자는  (가) 먹지 않으며, 오보 채식주의자는  (나) 먹지 않는다.

- ① (가):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나):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먹지만 유제품은
- ② (가):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나):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 ③ (가):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나):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먹지만 달걀은
- ④ (가):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나):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락토오보 채식주의자, 락토 채식주의자, 오보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되,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그런데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유제품과 달걀을 모두 먹는 채식주의자이다. 이로부터, '채식주의자' 앞에 붙는 단어는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의미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락토 채식주의자'는 우유(락토) 등의 유제품을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을 먹지 못하는 채식주의자이며, '오보 채식주의자'는 달걀(오보)을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을 먹지 못하는 채식주의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